

도모가우라항

이와미 은광은 1527년에 상인인 가미야 주테이가 근처 연안을 항해하던 중 산 정상에 햇빛이 반짝이는 것을 알아채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규슈의 하카타(현재의 후쿠오카시)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가미야는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오우치 씨족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. 오우치 씨족은 곧바로 이 “부의 산”을 자신들의 지배 하에 두었습니다. 오우치 씨족은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하카타와 한반도로 수송하고 제련하기 위해 은광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본해의 거센 파도와 세찬 북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도모가우라 만에 항구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와미 은광에서 항구까지 구릉지를 지나는 흩다리를 건설하는 등 무거운 짐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7.5km의 길을 정비했습니다. 그러나 이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고작 30여 년에 불과했습니다.

1562년에 오우치 씨족이 적이었던 모리 씨족에게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도모가우라의 항구와 길은 더 이상 은광석의 수송로로 이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이때 주변의 지역민들도 다시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도모가우라에는 오우치 씨족이 은 수송선을 계류시키기 위해 해안가의 부드러운 암석층을 깎아 만든 설비가 지금도 남아 있어 전성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.